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미 소비자들, 노동 시장 전망 어두워
- NYT: 미 공장 일자리 40만 개 채우기 힘들어
- Bloomberg: 파월 의장, 의회 둘째 날 “관세의 인플레 여파 어떨지 고민 중”

### [미국 금융]

- YahooFinance: 10년물 미 국채 금리 4%로 하향에 베팅 커져
- Bloomberg: S&P500 높은 레벨 유지하려면 기업 수익이나 금리 인하 필요해

### [미 관세 정책]

- Bloomberg: 미국과 멕시코, 철강 관세 쿼터 협상 중
- YahooFinance: 유럽 연합 "미국이 10% 기본 관세 부과할 경우 보복"

### [오일 가격]

- WSJ: 유가 3일 연속 하락 후 상승
- WSJ: 중동 위기 불구, 여름철 휘발유 가격 하락세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위협에 잘 대응할까?
- Bloomberg: GM 멕시코 공장 노동자들, 임금 인상 관련 새 노조 구성 투표
- Bloomberg: 월마트, 배송 속도 늘린다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**YahooFinance: Consumers are feeling the pressure of a stagnant labor market**

**미 소비자들, 노동 시장 전망 어두워**

- 미 소비자들이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6월 Consumer Confidence Survey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응답자 의 29.2%가 일자리가 많다고 답해 5월 31.1% 비율보다 줄어들었다.
- 일자리 잡기 힘들다는 응답률은 18.1%로 전원의 18.4% 보다 약간 줄었다.
- 한마디로 현재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**NYT: Why Factories Are Having Trouble Filling Nearly 400,000 Open Jobs**  
**미 공장 일자리 40만 개 채우기 힘들어**

- 현재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공장 일자리 평균 20개의 자격을 갖춘 구직자는 한 명 뿐이라는 것이다.
-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이민 제한 등 관련 일부 정책은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.
- 제조업에서 일하려는 노동 인력이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다. 베이비 부머는 은퇴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 분야로 진입하기 싫어한다. 제조업 일자리는 근무 일정이 유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서비스업보다 임금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. 현재 관련 제조업 일자리 40만개가 비어 있는 것으로 연방 노동 청 자료는 밝히고 있다.
- 기업들이 해외 생산에 덜 의존하고 미국에서의 더 생산 하려면 이같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NYT 기사

## Bloomberg: Fed's Powell Says Tariff-Driven Inflation Remains a Big Question

**파월 의장, 의회 둘째 날 “관세의 인플레 여파 어떨지 고민 중”**

- 연준 파월 의장은 오늘 상원 은행위원회에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여파를 줄지 연준은 고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.
- 그는 “누가 관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? 관세 비용이 물가로 얼마나 반영될 인가? 이같은 질문에 미리 예견하기는 힘들다”고 말했다.
- 연준은 최근 트럼프로부터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. 그리고 연준 2명의 이사는 인플레가 계속 제한될 경우 빠르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에 밝혔다.
- 그러나 파월 의장은 오늘 진술을 통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.
- 어제 화요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를 위협할 것이라는 연준의 우려를 피력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YahooFinance: Bond Traders Boost Bets US 10-Year Yield Will Dive Toward 4%

**10년물 미 국채 금리 4%로 하향에 베팅 커져**

- 연준 일부 의원들의 완화적인 정책 입장 표명과 중동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옵션 베팅을 늘리고 있다.
- 이같은 베팅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적어도 3천8백만불에 해당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8월 만기 10년물 콜 옵션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.
- 이같은 포지션은 현재 4.3%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향후 수 주 내에 4%로 떨어지는 데에 대비하기 위한 해지 수단이다.

YahooFinance 기사

## Bloomberg: S&P500 Needs Profit Boom or Fed Cuts to Justify Lofty Levels

### S&P500 높은 레벨 유지하려면 기업 수익이나 금리 인하 필요해

- 미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동 긴장 상태로 올해 역풍을 만나고 있지만 현재 거의 최고치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.
- S&P500 지수는 22배의 예상 수익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인 평균보다 35% 가 높아 밸류에이션이 과열될 우려를 보인다.
- 증시가 이같은 높은 레벨을 계속 유지하려면 S&P500 기업들의 수익이 내년에 30% 이상 증가해야 하고,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기업들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와 주식 시장 가격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미 관세 정책]

## Bloomberg: US, Mexico Eye Import Quota in Trade Talks on Steel Deal

### 미국과 멕시코, 철강 관세 쿼터 협상 중

-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철강의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쿼터 시스템을 협상 중이다. 이로 인해 미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관련 업계에 핵심적인 멕시코산 철강 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즉,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멕시코산 철강 수입 물량의 절반 정도에 쿼터를 부과하여 50% 관세를 면제도록 하고 10%의 기본 관세를 부과시키도록 하는 것이다.
- 이같은 미국의 방안은 외국산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업체의 입장도 반영하고 또 한 미국 내 철강 생산 능력 강화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도 함께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.

Bloomberg 기사

## YahooFinance: EU vows to retaliate if US sticks with baseline 10% tariff

### 유럽 연합 “미국이 10% 기본 관세 부과할 경우 보복”

- 유럽연합은 미국이 10%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면 보복할 것이라 밝혔다. 즉, 보잉사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천명했다.
- 유럽연합의 산업 부문 집행위원장인 Stephane Sejourne는 미국이 불균형적인 조치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주요한 부문에서 보복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.
- 한편 트럼프의 관세 마감일이 불과 2주를 남긴 시점에서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
YahooFinance 기사

### [오일 가격]

## WSJ: Oil Prices Rise After Three-Day Slide

### 유가 3일 연속 하락 후 상승

- 국제 유가가 최근 3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 소폭 상승했다.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에 완화되면서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.
-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이후 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올랐었다.
-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불안정해 보이나, 전문가들은 양 국가 모두 에너지 수출 인프라 또는 호르무즈 해협 운송로를 겨냥하지 않는 한 유가는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 WSJ: Gas Prices Are Down for Summer Driving Season Despite Middle East Turmoil

### 중동 위기 불구, 여름철 휘발유 가격 하락세

- 올해 여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중동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평균 3.21달러로, 이는 작년 대비 약 23센트 낮은 수준이다.
- GasBuddy의 석유 분석가 Patrick De Haan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휘발유 가격이 여름 동안 3달러에서 3.2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.
- 이러한 가격 인하는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덧붙였다.
- 또한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, 휘발유 가격이 인하함에 따라 로드 트립을 계획하는 여름 여행객의 비중은 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WSJ 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WSJ: How Visa and Mastercard Can Survive the Stablecoin Threat

###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위협에 잘 대응할까?

- 연방 상원이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한 반면, 비자와 마스터 카드와 같은 카드사들의 미래 수익성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.
-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비용이 더 낮고 해외 결제 시 편리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되기는 하나,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채택해야 할 이유는 아직 부족하다.
- 이에 따라 비자와 마스터 카드 등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카드 결제와 연동하거나 판매자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동을 적극 시도 중이다.
- 또한, 스테이블 코인 소비자들은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, 이 수익은 주로 결제받는 상인이 아니라 코인을 발행한 사람에게 돌아간다.

-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을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채택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카드사와 협력해야 한다.

WSJ 기사

## Bloomberg: GM Workers at Mexican Plant to Vote on New Union in Wage Push

### GM 멕시코 공장 노동자들, 임금 인상 관련 새 노조 구성 투표

- 멕시코 중부에 있는 GM(General Motors) 공장 노동자들은 정보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조인 SINTTIA에 가입할지 여부를 이번 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.
- SINTTIA는 시간당 평균 3달러를 받는 6,5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과 회사와의 소통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. 이들은 과거 공장에서 10.22%의 임금 인상 협상에 성공한 바 있어 노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.
- SINTTIA가 승리할 경우, 모든 관련자에게 까다로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멕시코 자동차 노동자 전반의 임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- 또한, GM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고자 생산 시설 일부를 이전하고 있어 미국 공장에 40억 달러를 투자 중이다. 이러한 생산 계획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, GM은 인건비 혹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Walmart Looks to Speed Up Delivery by Opening 'Dark Stores' Closed to the Public

### 월마트, 배송 속도 늘린다

- 월마트는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고객에게는 운영되지 않는 온라인 주문 처리 담당 매장 '다크 스토어(Dark Stores)'를 시험하고 있다.
- 현재 월마트는 댈러스에 소규모 창고 중 하나를 열었고, 아칸소주 벤튼빌에도 또 다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.
- 다크 스토어는 월마트가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넓은 배송 반경을 확보하고 배송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월마트는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, 올해 온라인 사업에서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. 또한,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주문을 일괄 처리하고 창고 내 상품 검색과 포장을 자동화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[보고서]

### 반등 나선 미국 국채..."10 년물 금리 4%로 하락" 전망도 '채권왕' 그로스는 "인플레·재정적자 탓 4.25% 아래 쉽지 않아"

'셀 아메리카' 분위기 속에 약세를 보였던 미국 국채 가격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
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5 일 오후 4 시 10 분 기준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 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1.6bp(1bp=0.01%포인트) 내린 4.279%에서 움직이고 있다.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국채 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